
2025년 제42회 관세사 1차 시험 총평

관세법개론

구민회 관세사

1. 전반적인 난이도 및 경향

이번 2025년 관세사 관세법은 역대급으로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었습니다.

최상위급의 문제 수가 늘어난 것도 어려웠지만 중위급 문제도 보기를 선택할 때 혼동을 줄 만한 보기를 배치하여 수험생들이 풀이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원래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함정보기가 있어야 하는데 올해 이전 시험의 중하위급 문제는 그런 보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험에는 함정보기를 많이 넣어 난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1) 관세법 - 과세편(18문제)

총칙2, 과세가격2, 세율4, 부과징수2, 담보1, 납세의무소멸1, 환급1, 감면분납3, 납세자권리2

(2) 관세법 - 통관편(조사벌칙포함- 16문제)

운송수단2, 보세구역4, 통관5, 벌칙조사5

(3) FTA특례법(6문제)

총칙2, 협정세율의 적용2, 통관특례 및 관세상호협력1, 협정관세의 적용제한1

2. 작년 시험 대비 난이도

관세법은 전 분야에서 골고루 출제되었지만 각각의 파트에서도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 예전 기출문제에 비해 출제가 많았습니다.

FTA특례법의 경우에는 문제수준은 평이했지만 기존에 항상 출제되었던 원산지증명, 원산지조사파트가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아서 FTA특례법을 전반적으로 하지 않은 수험생은 고전했을 것입니다.

3. 킬러문항

킬러문제 또한 기존에서 3~4문제정도 출제되었던 것에 비해 6문제정도 출제되었습니다.

잠정세율인하시 제출자료문제, 안전관리기준준수도 측정평가결과활용문제, 국가간 세관정보 상호교환사유 문제, 공무원의제문제 등의 문제 등의 지엽적인 문제의 출제 수가 늘어났습니다.

4. 총평

지금까지는 1차관세사시험에서 관세법은 시간투자대비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으로 여겨 회계원리나 무역영어 등에 비해 투자를 적게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관세법 공부방향은 시험의 난이도가 대폭 상향된 만큼 편협적인 공부는 지양하고, 더 많은 투자를 통한 전 분야에 걸친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하겠습니다.

2025년 제42회 관세사 1차 시험 총평

관세법개론

윤준필 관세사

1. 전반적인 난이도 및 경향

전반적으로 기출유형, 개정법령에서 출제되었고, 1문제도 출제되지 않은 파트가 2곳(제8장 운송, 제13장 보칙)이나 되어 난이도는 평이하거나 쉽게 출제된 것으로 판단됨. 특히,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된 비중이 적었고 서류 기재사항을 묻거나 대통령령/기획재정부령·관세청장/세관장 주체를 묻는 까다로운 유형이 적었다고 보여짐.

2. 고난이도 문항

A형 5번 잠정가격 신고대상(시행규칙), 13번 잠정세율 적용정지(시행령), 32번 특허수수료(시행규칙) 등은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된 문제로 세심하게 암기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다소 까다로웠을 문제임. 또한 28번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보는 대상을 구분하는 문제는 최근 출제 유형과는 달리 독특한 유형의 문제로 수험생들을 많이 당황시켰을 것으로 판단함. 다만, 전체적으로 까다롭다 평가되는 문항도 8문항 이내로 생각되어 고득점 획득에는 무리 없을 것으로 예상함.

3. 총평

공부할 양이 많은 제2장 부과징수, 제7장 보세구역, 제9장 통관 등에서의 출제 비중이 적었고, 분량이 적은 파트라 볼 수 있는 제1장 총칙, 제6장 운송수단, 제11장 벌칙에서 총 7문제나 출제되는 특징이 보임. 문제 유형이나 내용 역시 기존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 기출문제 풀이나 모의고사 과정을 충실히 경험한 수험생 입장에서는 고득점(7~80점 이상) 획득에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됨.

무역영어

김용원 관세사

1. 전반적인 난이도 및 경향

2025년도 무역영어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실무파트에서는 출제되지 않고 40문제 전부 협약에서 출제되었다는 점, 둘째, 한 문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문제가 기존에 출제되었던 부분에서 변형되어 출제되었다는 점, 셋째, 3대 협약에서는 21문제가 출제되어 기존 경향을 유지했으나 기타협약에서 작년보다 5문제가 많은 19문제가 출제되면서 난이도가 약간 상승했다는 점이 특징

2. 작년 시험 대비 난이도

24년 무역영어에서는 3대협약 21문제, 기타협약 14문제 및 실무 5문제로 구성이 됐지만, 25년에는 3대협약 21문제 및 기타협약 19문제로 기타협약 점유율이 전년대비 30%가량 상승. 대체로 기타협약의 문제 비중이 높아지면 수험생들이 느끼는 난이도 역시 다소 상승하게 됨. 또한 다수의 지문을 제시하고 복수의 옳은 지문 혹은 틀린 지문을 골라야 하는 문제가 많아 작년에 비해 난이도가 약간 상승한 것으로 보임.

3. 킬러문항

문제유형 A형 기준 61번 문제는 국제표준은행관행(ISBP)에서 출제되었으며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범위에서 출제된 킬러문항이라고 볼 수 있음. 25년을 시작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됨.

4. 총평

3대협약의 출제비중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수험생들이 느끼는 난이도와는 별개로 확보할 수 있는 점수는 큰 차이가 없음. 다만 복수의 지문을 골라내는 문제는 매우 디테일한 부분까지 파악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시험이었음. 또한 기존 기출문제의 변형문제가 대다수인 점을 볼 때 기출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음.

2025년 제42회 관세사 1차 시험 총평

내국소비세법

이경신 세무사

42회 관세사 1차 시험의 내국소비세법은 기존의 출제방식과 다르고 너무 지엽적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기출문제와 다른 형식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최근들어 매년 기존의 기출문제 형식과 다른 형식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출제문항은 부가가치세법 30문제, 개별소비세법 6문제, 주세 4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42회 내국소비세법 중 부가가치세법은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으나 일부 문제가 기존의 출제방식을 벗어나 너무 지엽적으로 출제되었습니다. 30문제 중 계산문제는 3문제로 기본적인 지식만 있으면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였지만 시험장에서는 기존의 계산문제와 다른 형식이어서 우리 수험생 분들이 당황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엽적인 문제로는 적용기한 및 부칙의 내용이 출제되어서 세세히 학습하지 아니한 수험생 분들은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도에 개정된 수시부과제도에 대해서도 출제되어서 개정세법을 숙지하지 못한 분들은 풀지 못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개별소비세법과 주세법은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기존의 기출문제들과 비슷하게 기본적인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내국소비세법은 고득점하기 쉬운 과목입니다. 42회 시험도 기존의 출제경향을 벗어났어도 꼼꼼히 학습하신 분들은 고득점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 수준이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지엽적이고 응용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세세히 학습하셔야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시험 보신 수험생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회계학

유지원 회계사

1. 전반적인 난이도 및 경향

이론형 문항의 수가 적어지고 계산문제 문항의 수가 증가한 이유로 수험생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상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급회계 전분야에서 고르게 출제되었으나, 전년 대비 자본파트의 문항수가 증가했습니다.

2. 작년 시험 대비 난이도

재무회계의 계산문제 난이도는 전년과 유사했으나, 계산문제 문항수가 증가했으며, 원가관리회계는 전년 대비 쉽게 출제되었으므로 실제 수행생들의 회계점수는 전년과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킬러문항

그간 출제된 재무회계의 난이도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새롭게 출제되었다고 보여지는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4. 총평

이번 관세사 시험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회계학의 특정 파트에 국한되지 않고 전 범위에서 출제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수험생들도 이에 맞춰 회계학 전범위에 대한 성실한 대응과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5년 제42회 관세사 1차 시험 총평

회계학

김성수 세무사

먼저, 2025년 관세사 1차 시험을 치른 모든 수험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시험장에서 충분히 발휘하셨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험은 재무회계 30문제, 원가관리회계 10문제로 구성되었으며, 계산문제 31문제, 이론문제 9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평소 이론문제가 10문제 정도 출제되는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한 문제가 줄어든 형태였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평이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2024년) 회계학 시험이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원가관리회계는 전반적으로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되었으며, 재무회계는 일부 문제(50번, 53번, 54번, 60번 등)에서 난이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문제가 수업과 문제풀이 과정에서 다뤘던 유형과 유사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회계학을 충실히 정리하고 대비한 수험생이라면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모든 수험생 여러분께 진심 어린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